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체육학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 성별, 학년을 조절변인으로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학과
문 민 권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 성별, 학년을 조절변인으로

지도교수 권 성 호

이 논문을 체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문 민 권

문민권의 체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 성별, 학년을 조절변인으로

문 민 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공격성, 충동성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초통계량,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학년, 충동성 각 요인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 감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공격성 감소의 영향은 학년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셋째, 학년, 성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 및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공격성, 충동성
학번: 2011-21610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5
3. 연구 문제 ····· 5
4. 용어의 정의 ····· 6
1) 공격성 ····· 6
2) 충동성 ····· 6
3) 학교체육활동 ····· 6
4)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 6

Ⅱ. 이론적 배경 ····· 7
1. 공격성의 개념 ····· 7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 7
2) 공격성 관련 이론 ····· 8
2. 공격성과 연령 ····· 12
3. 공격성과 성별 ····· 14
4. 공격성과 충동성 ····· 15
1) 충동성의 개념 ····· 15
2) 공격성과 충동성의 관계 ····· 17
5. 공격성과 학교체육활동 ····· 18
1) 학교체육활동의 개념 ····· 18
2) 체육활동 관여수준 ····· 19
3) 공격성과 학교체육활동의 관계 ····· 20

Ⅲ. 연구방법 ····· 22
1. 연구절차 ····· 22
2. 연구대상 ····· 23
3. 조사도구 ····· 25
1) 공격성 설문지 ····· 25
2) 충동성 설문지 ····· 26

Ⅳ. 연구결과 ····· 28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 28
2. 성별 및 학년, 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30
1)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과 공격성 ····· 32
2)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과 공격성 ····· 34
3)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과 공격성 ····· 39

Ⅴ. 논의 ····· 41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 45
2. 제언 ····· 46

참고문헌 ····· 48
부록 ····· 59

표 목차

표 1. 성별, 운동기능 수준, 학년에 따른 인원 및 비율 ····· 24
표 2.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른 인원 및 비율 ····· 24
표 3. 공격성 설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25
표 4. 공격성 설문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내적합치도 ····· 26
표 5. 충동성 설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27
표 6. 공격성 설문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내적합치도 ····· 27
표 7. 공격성, 충동성의 기술통계 ····· 28
표 8. 공격성, 충동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 29
표 9. 학년 변인 더미코딩 ····· 31
표 10.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 33
표 11.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충동성의 조절효과 검증 ····· 35
표 12. 범주형 자료 변환 ····· 36
표 13.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 40

그림 목차

그림 1. 공격성에 대한 이원상호작용 효과 모형 ····· 5
그림 2. 공격성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모형 ····· 6
그림 3. 연구 절차 ····· 22
그림 4.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 31
그림 5. 학년, 인지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37
그림 6. 학년, 무계획 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 ····· 37
그림 7. 학년, 운동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 ····· 38
그림 8. 학년, 인지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3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대구 중학생과 경산 고등학생 자살사건은 신체폭력, 공갈, 협박과 같은 또래 괴롭힘에 의한 학교폭력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 6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율과 피해율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심각성 인식수준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청소년 자살사건의 초점은 성적이나 가정환경에 대한 비관이었지만, 이제는 학교폭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30.9%의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최근 1년 이내에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11).

학교폭력의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회적, 정신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성적저하, 만성적 등교 거부 및 교육과정 포기 등의 교육 기회 상실과 안정적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White, Loeber, Stouthamer-Loeber & Rarringtonet, 1999). 가해학생 또한 불안과 우울 등의 적응 문제를 겪게 된다(Kaltiala -Heino, Rimpela, Rantanen & Rimpela, 2000).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성인기까지 확대될 수 있고,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폭력의 사회화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김순혜, 2007; Olweus, 1979)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밝혀진 영향요인은 단일차원 또는 소수의 차원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정규성, 2006). 학교폭력 유발요인들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심리적 특성과 학교, 가정, 친구, 폭력매체 노출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이며, 그 중 개인·심리적 특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공격성이 동반된 폭력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성격적 특성이 이러한 행동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민병근, 백민기, 1981; 김헌수, 김현실, 1997; Kupersmidt & Coie, 1990). 특히 학교폭력의 영향 요인과 관련된 개인 변인 중 하나는 공격성이다. 사전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은 폭력성과 관련성이 높고(박미연, 1999), 성별, 자아존중감 등의 다른 변인들보다 폭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문자, 2003).

공격성이 폭력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욕구좌절 가설(Miller, 1941)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욕구좌절 경험은 공격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욕구좌절에 의해 공격성이 언제나 실제상의 욕구좌절을 일으킨 대상 또는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욕구좌절에 대한 대상이 너무 위협적이거나 상대할 수 없을 때 공격성의 대상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겪는 욕구불만은 부모, 교사 등과 같이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상대하기가 어려운 존재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희생양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수집단의 구성원이나 아무런 죄가 없는 힘없는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Koltz, 1983).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공격성 해소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공격성이란, 특정대상(자신, 타인, 동물, 물체)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해를 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 및 정서이다. 이러한 공격성은 인류가 진화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적응적 행동이며(Koops, 2001), 먹기, 잠자기 등과 같이 생리적 구조에 의해 나타나며, 인간은 이후 경험에 의해 공격성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Tremblay & Nagin, 2005).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공격성은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특질이며, 경험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변인이다(최문형, 유진, 2009). 인간의 발달적 단계에서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Kohut & Wolf, 1978)는 공격성의 변동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이 안정적이며 성장 단계에 상관없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 비해(Farrington, 1989; Olweus, 1979; Van Beijsterveldt, Bartels, Hudziak & Boomsma, 2003), 공격성의 변동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청소년 시기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남순현, 최희경, 2006; Berkowitz, 1993; Moskowitz, Schwartzman & Ledingham, 1985). 이는 청소년 시기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성장하는 사회화 과정 중의 중요한 단계이며, 다른 어느 시기보다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격성은 특정발달 단계인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그 시기의 발달적인 심리적 특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곽금주, 문은영, 1995), 사춘기 연령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변동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또 다른 주제는 성별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공격성과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공격 행동이나

폭력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윤리라, 1999; 이경님, 2006;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주로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된 연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과 같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공격적 의식이나 행위와 같은 요인을 포함했을 경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최혜림, 2005; Tremblay, 2000). 즉, 남녀 모두가 공격적이고 적대적일 수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남학생은 겉으로 보이는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Crick & Grotpeter, 1995). 결과적으로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발달 양식에 차이가 있으며, 성차에 대한 논의 역시 공격성을 논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격성은 사춘기의 발달적인 심리적 특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데, 특히 충동성은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를 수반한 반응적 공격성, 그리고 자신에게 공격적 행위가 전가되는 자살시도 및 자해행동 등과 같은 여러 문제 행동 유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Barratt, 1991; Clarke, 2006; Ramirez & Andreu, 2006).

충동성은 일생동안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정도를 예언하는 변수로 작용한다(Ostrov & Godleski, 2009; Vigil-Colet & Codormin-rega, 2004). 충동성이란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충동적인 사람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행동을 한다(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충동을 조절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품행장애, ADHD, 반사회적 성격장애, 기분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최혜라, 이훈진, 2012). 또한, 충동적인 사람은 화를 쉽게 내고, 반항적이며, 타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자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낮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따라 통제하기 어렵다(김경은, 박영애, 2005; 이경숙, 홍영근, 2011).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밝히고 있으며(Wilson, Lipsey & Derzon, 2003), 이는 충동성 조절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체육활동 참여와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욕구불만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여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나을식, 2010; 신선미, 2003; 이병화, 2008; 채화정, 2011)를 도출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행동과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공격성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김동철, 2000; 김성옥, 김정원 & 황진, 2007; 이성학, 2012; 전은영, 2012). 이와 같이, 체육활동과 공격성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체육활동 참여와 공격성의 관계에 다른 변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해진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업시수 동안 체육활동에 참여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해당 시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다. Rothschild(1984)는 스포츠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자극 또는 관심의 상태를 스포츠 관여도(sports involvement)라고 하였다. 학교체육활동 상황에서도 이러한 관여도의 수준은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행동과 함께 동기적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자체에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involvement level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은 시간, 강도, 빈도와 같은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일반적 변인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학교체육현장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과후 체육활동 강화, 중학교 체육시수 4시간으로 확대 등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확대가 학교에서 긍정적 체육활동이라는 의미를 통해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고 공격성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체육활동 확대가 공격성 해소를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최근의 상황에서 과연 교육적 수요자인 학생이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격성이 감소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을 성별, 연령, 충동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학교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를 더욱 세부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11)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아래와 같이 검증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청소년의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2) 청소년의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삼원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충동성, 성별,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청소년의 성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청소년의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청소년의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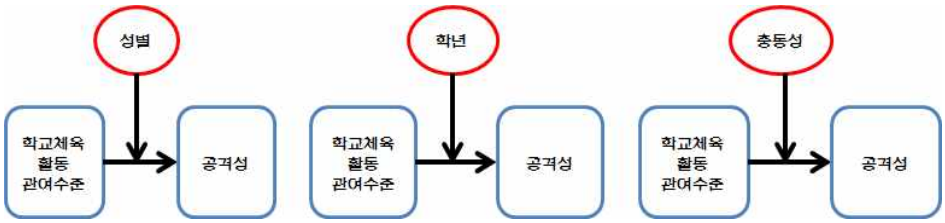

그림 1. 공격성에 대한 이원상호작용 효과 모형

2) 청소년의 충동성, 성별,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청소년의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청소년의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청소년의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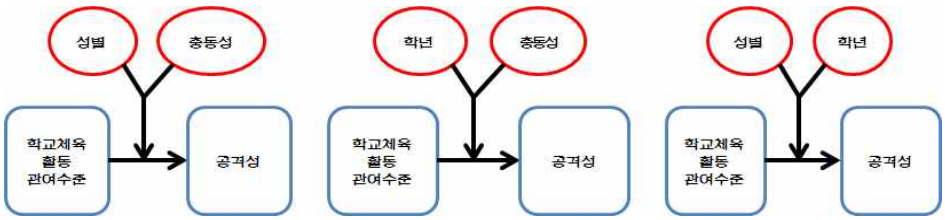

그림 2. 공격성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모형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격성(aggression)

공격성이란 특정대상(자신, 타인, 동물, 물체)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해를 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 및 정서이다.

2) 충동성(impulsivity)

충동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3) 학교체육활동(physical education activity)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과 교육시간에 행해지는 체육수업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한 개념의 방과후 체육활동을 의미한다.

4)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involvement level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

학교체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전념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준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격성의 개념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aggression)은 본능, 생물학적 과정, 개인의 성격, 학습된 습관, 관찰 학습 등을 통한 신체적·언어적 행동과 감정 등의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는 중복적이고 모호하며,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공격성을 유기체에 대해 유쾌하지 못한 자극을 가하는 행위(Buss, 1961), 일반적으로 타인 또는 그의 소유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Feshbach, 1964), 타인에게 상처를 입혀 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Bandura, 1973)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또한, 노치영(1988)은 공격성을 타인 또는 그의 사물에 대하여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파괴적 행동과 이러한 의도를 가진 직접적 행동으로 정의했으며, 이은아(2010)는 사람이나 개체를 해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언어적·물리적 행위, 사고 및 정서라고 정의하였다.

공격적인 행동은 폭력(Violence)과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폭력은 극단적인 손상을 가하는 공격을 말한다. 즉, 폭력은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격은 반드시 폭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Aderson & Bushman; 2002).

연구자에 따라 공격성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도발적인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인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Feshbach, 1970). 공격성은 표현 방법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대상에 따라 간접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신체적 공격성은 상대에게 신체적인 상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적 행동이고, 언어적 공격성은 대상에게 사회적·심리적 해를 가하려는 언어로 표현된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 공격성은 원인 제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상이 치환된 공격이나 구체적 대상이 없는 공격 행동을 의미하며, 직접적 공격성은 욕구 좌절을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공격성을 말한다(Frodi, Macaulay & Thome, 1977). 또 다른 연구자는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적 공격성과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단지 상상을 통해 표현하는 내재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Kagan, Mussen & Conger, 1979). 또한, 공격 행위의 특성에 따라 공격 원인 제공자에게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집단의 힘이나 압박을 활용하여 대인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함으로써 해를 주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공격성을 정의하기도 한다(Crick, 1995). 또한, 어떠한 수단이나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손상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목표나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도구적(instrumental) 공격성,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려는 동기나 의도를 갖고 행하는 적의적(hostile) 공격성, 그리고 목적보다는 분노와 같은 정서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정서적(emotional) 공격성이 있다(Feshback & Feshback, 1982).

이러한 다양한 공격성의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격성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보는 행동적 수준의 접근방식이고, 다음으로 공격자의 동기나 의도와 같은 인지적, 정서적 수준의 접근방식이다(유귀순, 2001).

결과적으로 공격성에 대한 정의 및 유형은 다양한 개념과 관점을 포함하고 있어 공격성을 단일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공격 의도, 행동의 결과, 사회적 여건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특정대상(자신, 타인, 동물, 물체)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해를 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 및 정서라고 정의하였다.

2) 공격성 관련 이론

(1) 본능이론(Instinct theory)

Freud(1920)는 인간의 내부에는 일정한 양의 내적 충동이 있으며, 인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본능인 삶의 본능(Eros)과 죽음의 본능(Thanatos)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윤진란, 1994, 재인용). 삶의 본능인 리비도(Libido)는 인간의 생명력이 되지만 죽음의 본능은 내부적으로 자살이나 자기 파괴로 이어지며, 외부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공격을 유도한다. 또한, 공격성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로 전환되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김경희, 1986).

하지만 그는 자연적인 인간의 특성으로 공격성을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격성은 제거하거나 억제하여야 할 특성이 아니라,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표현하거나 분출하지 못할 경우 공격적인 에너지가 내부에 축적되며, 이러한 에너지가 폭력행동을

유발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문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공격 행위를 표현함으로써 공격적 충동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Lorenz(1966)는 인간의 공격성을 동물의 공격행동과 비교하였으며, 인간이나 동물은 기본적으로 동족에 대한 투쟁 본능을 갖고 있고, 공격행동은 종족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윤진란, 1994, 재인용). 그는 공격성을 외적자극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기체에 발생하는 동기화 된 힘 또는 추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추동을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적절히 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능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인간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접하면서 공격적 충동을 해소하고 또한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Berkowitz(1988)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격적 행동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공격 행동을 접하면서 공격 충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로 그러한 행동이 공격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2) 생물학적 이론(Biological theory)

생물학적 이론은 생물학적 기제를 통해 공격성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혀보려는 입장에서 만들어졌다.

먼저, 공격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물학적 요소는 호르몬 분비이다.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적·물리적으로 공격성이 높으며(Green, Richardson & Lago, 1996), 높은 수치의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Archer, 1991; Dadds & Morris, 1990; Maccoby & Jacklin, 1975). 또한, 남녀 대학생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차이는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Harris, Rushton, Hampson & Jackson, 1996). 또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역시 폭력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tner & Whitaker-Azimitia, 1996; Mitsis, Halperin & Newcorn, 2000).

또 다른 생물학적 요소는 자율신경계의 낮은 각성 상태이다(Raine, 1996).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는 공격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ennan, Schulsinger, Kirkegaard-Sorensen, Knop & Hutchings, 1997).

다음으로, 뇌와 연관된 요인 역시 공격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이며 공격적 행동은 뇌손상, 뇌종양, 측두엽 간질 등과 관련이 있다(Mednick, Brennan & Kandel, 1988). 또한, 15명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Lewis, Pincus, Feldman, Jackson & Bard, 1986).

(3) 욕구좌절 이론(Frustration theory)

욕구좌절 이론은 인간의 욕구좌절과 이에 따른 결과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으로(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Miller, 1941), 이 이론에 따르면, 욕구좌절은 외부적 힘이나 권위에 의해 성취욕구나 행동의 목적이 방해를 받을 경우, 서로 공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상황으로 인해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한 제약으로 인해 부당함을 겪게 될 경우,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공격행위는 욕구좌절에 의해 나타나는 주요 반응이고, 공격성의 강도는 좌절의 정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좌절감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은 항상 배출구를 찾아내어 분출되어야 한다(Dollard, 1939).

하지만, 욕구좌절에 의해 공격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공격행위로 인해 자신이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는 다른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즉, 욕구좌절에 따라 나타나는 공격적 행위는 욕구좌절을 유발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하여 신체적·언어적 공격과 같은 외현적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욕구좌절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나 대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가된 형태의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Koltz, 1983).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나 힘센 다른 친구에게 분노를 느끼는 학생은 자신의 욕구불만을 통해 좌절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욕구좌절을 당사자인 교사나 친구에게 풀지 못하고 힘이 약한 다른 학생을 괴롭힘으로써 해소하는 것이다. 때때로 소수 집단이나 그 구성원이 좌절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누군가가 공격 행동의 분출구가 되기도 한다.

(4)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Bandura(1973)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다양한 부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되며, 공격성 역시 욕구, 충동, 본능과 같은 내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격성이나 공격적 행위는 주로 정적강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정적강화는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킨다.

이옥주(1976)는 아동들에게 있어 공격성을 유발하는 변인에는 부모 태도, 공격 행위에 대한 보상, 공격적 모형의 관찰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공격성이 본능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시켜야 하고, 욕구좌절에 대한 반응이라면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조절해야 하며, 반면에 사회적 경험에 따른 학습의 결과물이라면 이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사회인지 이론은 특정한 대인행동에 의해 발달단계의 아동이 공격적 행동과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대하여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은 인지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자유와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러한 자유와 의지에 대해 위협을 받거나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부모나 교사 등에 의해 제지당할 경우 공격적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재근, 1993).

사회인지 이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르는 결과는 자신의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사회인지 모형은 공격성에 있어서 성차, 연령차,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 및 공격행위의 안정성 등의 문제를 밝히는데 적절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6)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processing Theory)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Crick & Dodge, 1996) 공격성이나 공격적 행위는 사회적 정보처리 상황에서 믿음, 반응, 그리고 결과에 따른 기대에서 보이는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아동은 자신이 놓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사회적 단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단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격적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 부호화 단계, 단서와 표상의 해석단계, 명료화 단계, 반응 탐색 단계, 반응 결정 단계, 반응 실행 단계 순차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공격성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Crick & Dodge, 1996).

먼저, 사회적 부호화 단계에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더 적은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다음으로, 단서와 표상의 해석단계에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단서를 왜곡하여 적대적으로 해석하며 그 원인과 책임을 편향적으로 귀인한다. 이와 같이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이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적대적 속성 오류(hostile attribution bias)라고 부른다. 상호작용 목적의 명료화 단계는 적절한 정보가 동화된 이후의 단계이다. 다음으로 반응 탐색 단계를 통해 반응할 수 있는 대안수를 탐색하게 되는데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반응 대안수가 적으며, 심지어 반응 대안수에 공격적인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응 결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안들로 인해 초래될 결과를 심도있게 고민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지 결정하게 된다.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특정 단서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그러한 단서마저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응결정이 즉각적이다. 마지막으로 반응 실행 단계에서는 아동이 공격적 행동을 표출하게 된다.

사회적 정보처리 모형에서 공격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믿음, 과거 사건, 그리고 행동에 따른 결과 등에 영향을 받으며, 공격적 행동의 원인은 정보처리 단계 중 한 단계 이상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생기게 된다. 또한, 반응 실행 단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결과와 이에 따른 피드백은 새로운 과정을 생성하게 된다.

(7) 기타 이론

그 외에도 폭력의 주요 피해자인 아동이나 여성이 남성의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보는 피해자 유발 이론(Amir, 1971; Schonberg, 1992), 근본적으로 가부장제에 의해 여성에 대해 행사되는 남성의 폭력을 이해하려 하는 여성주의이론(Riger & Gordon, 1988), 앞서 설명한 여러 이론들이 단일차원에서 작용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작용한다고 하는 다중요인 이론(Berkowitz, 1992) 등이 있다.

2. 공격성과 연령

공격성을 종단적으로 반복 측정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공격성이 아동기로부터 유지되어 오는 안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공격성은 아동의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개인적 특성으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변인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도 공격적이며 다양한 폭력 및 범죄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Hudley & Graham, 1993).

Olweus(1979)는 공격성 성향이 유치원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은 과격하거나 또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Farrington(1989)은 도시에 사는 8세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한 후 그들이 22세가 되었을 때 공격성을 재측정한 연구에서 상당수의 아동이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한 결과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Van Beijsterveldt, Bartels, Hudziak & Boomsma, 2003).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발달과 더불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변동하는 변인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였다. Loeber와 Hay(1997)는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의 공격성 발달에 대해 연구한 결과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뉴질랜드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공격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발달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 나타나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과 초등학교 4학년의 아동의 공격성을 비교한 결과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Moskowitz, Schwartzman & Ledingham, 1985),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공격성 변동 경향을 살펴본 결과 3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김경아, 2008)와 같은 맥락이다.

Kagan 등(1979)은 공격성을 행동적 공격성과 내재적 공격성으로 나누었으며, 신체적 행동 표현이나 언어 표현 등 겉으로 드러났을 때의 공격성을 행동적 공격성이라고 하고, 표현되지 않으나 내재해 있다고 보이는 공격성을 내재적 공격성이라고 하였다. 두 공격성은 연령에 따라 다른데 나이가 어릴수록 신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고 나이가 들수록 언어적이고 간접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한다. 또 두 공격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어 행동적 공격성이 높으면 내재적 공격성도 함께 높았다(최기수, 2010, 재인용). 또한, 신체적 공격성이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Tremblay, Boulerice, Harden, Mcduff, Perusse, Pihi & Zoccolio, 1996).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는 빈정거림, 비난, 욕설, 조롱 및 모욕과 같은 분노의 언어표현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분노감이 발달단계 중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정서적으로 가장 쉽고 격렬하게 동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규미, 1998).

이처럼 공격성이 변동한다는 입장은 공격성 요인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Dunn, 1985)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즉, 공격성은 개인의 정서조절이나 기질과 같은 특성적 요인에서 뿐만 아니라 낮은 지능(Marguin & Loeber, 1996), 집중력 장애(Campbell, 1990; Loeber & Hay, 1997), 자존감(이민아, 한종철, 이기학, 1999; Anderson, 1994) 등의 인지적 요인, 빈곤, 사회구조, 가족 등과 같은 환경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이외에도 또래로부터 거부(Kupersmidt & Coie, 1990), 내적

통제성(김애경, 2001;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로부터의 지지 및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학교환경(이상균, 1999) 등은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공격성은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사회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며 다른 어느 과정 중에 있는 연령층보다 분명 태도나 행위의 변화가 많다(김경아, 2008). 그러므로 공격성은 사춘기라는 특정 발달단계를 경험하면서 그 시기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5).

3. 공격성과 성별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아보다 남아가 공격성이 높으며, 남자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신체적 공격행동, 폭력 등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보다 수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범죄행동을 보인다(윤리라, 1999; 이경님, 2006;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주로 외현적인 공격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적대행위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다(장유진, 2007). 공격성은 남녀 모두에게서 공격적이고 적의적일 수 있지만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싫어하거나 목표를 방해하는 타인에 대해 남자는 외현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은 반면, 여자는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즉, 남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이나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지만(정은혜, 1991; Buss & Perry, 1992; Gladue, 1991; Maccoby & Jacklin, 1980), 이에 반해 여자들은 친구와의 우정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손상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김용태, 박한샘, 1997; Crick & Grotpeter, 1995; Galen & Underwood, 1997).

또한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Tremblay(2000)는, 지금까지 공격성에 관해 성차를 논의한 선행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공격적이라고 하였으며, 간접적인 공격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낮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간접적인 공격성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유의하게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여학생의 공격성이 남학생의 공격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나(Capaldi & Crosby, 1997), 여자 청소년이 공격성의 유형 중 하나인 분노감과 적대감은 남자 청소년보다 의미 있게 높다는

연구결과(최해림, 2005)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또 다른 다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Tomada & Schneider, 199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성별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Crick, 1995).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격성 변동의 영향 요인을 종단적으로 조사한 연구(김경아, 2008)에서는 성별에 따른 공격성이 여자 청소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자 청소년은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공격성의 발현과 지속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공격성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격성에 있어서의 성차에 대한 논의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또한 성별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경님(2006)은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변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히며, 남아의 경우 학교규칙적용,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권위 통제적 양육행동, 교사관계가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반해, 여아의 경우 학교규칙적응이 공격성을 예측한다고 보고 있다.

4. 공격성과 충동성

1) 충동성의 개념

(1) 충동성의 정의

충동성(impulsiveness)이란 단순하게 말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목적 없이 행동을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DSM-Ⅳ에 의하면 충동성은 자신이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대한 제지 곤란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행동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김경하, 2005). 그리고 APA(1994)의 정의에 의하면 충동성은 임상심리학적으로 볼 때 충동조절 장애 혹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진단 시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질이다. 또한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며 예견능력이 부족한 성격특질로 규정할 수 있으며(이인혜, 1991; Barratt, 1983), 분노, 흥분, 좌절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행동적으로 옮기는 성향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이수경, 오인수, 2012).

이러한 충동성은 개인에게 있어 반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일생동안 문제를 야기하는 특질이다(Cleckley, 1976).

충동성은 다양한 측면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먼저 충동성을 성격적 특성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충동성은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며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것(김철민, 2003), 또는 망설이지 않고 일을 빨리 처리하며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며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주상근, 2007; Buss & Plomin, 1975).

다음으로, 인지적인 측면과 운동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충동적인 사람은 운동능력을 자제하기 어렵고, 인지적으로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김효선, 2002).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인지 처리 속도가 빠르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지각-운동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처벌에 대한 둔하며, 현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심리학 영역에서 충동성은 사고 및 행동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리고 주의결핍장애의 요인으로 간주되며, 아동의 과잉 행동, 학습 장애, 난독증, 그리고 정신병과도 상관이 있다고 한다(Barratt & Patton, 1983).

(2) 충동성의 유형

Barratt(1983)의 Impulsivity ScaleⅡ에서 충동성을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충동성과 같이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인지충동성과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어떤 일이라도 쉽게 집중하지 못하고, 심사숙고하여 행동하지 못한다.
-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려하며, 복잡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싫증이 난다.
- 한 가지 일을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며,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크게 방해를 받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② 운동충동성과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 한 장소에 오랫동안 앉아 있지 못하고, 깊은 생각 없이 말을 한다.
- 충분한 계획이나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며,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대로 물건을 구입한다.
-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③ 무계획충동성과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일을 착수하기 전이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다.
- 정기적으로 저축하지 않으며,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착수한다.

2) 공격성과 충동성의 관계

충동성이 높은 학생들은 화를 쉽게 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괴롭힘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충동성과 다양한 심리적 특성, 그리고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충동성은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Cleckley, 1976; Eysenck, 1977; Robins, 1978). 특히 충동적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반사회적 행동이 미래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공격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학업생활의 성취를 저해하여 폭력 행위와 같은 비행을 간접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Moffitt, 1993). 또한, 높은 충동성 수준은 심각한 반사회적인 행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ington, 1989; Wilson & Herrnstein, 1985).

공격성과 충동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적인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언어적 공격성을 나타냈다(정태연, 윤진; 1992). 하지만, 정태연 등(1992)은 공격적인 아동이 반드시 충동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충동적 성향에 따라 공격행동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공격성과 충동성이 연령에 따라 인지적 특성이나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성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행 행동이 빈번하며, 기물파손, 성관련 비행과 같은 유형의 공격 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이경숙, 홍영근, 2011). 뿐만 아니라 충동성은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그리고 분노에 대한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Barratt, 1991; Clarke, 2006; Ramirez & Andreu, 2006). 충동성은 집단괴롭힘에도 영향을 주는데 중학생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 외부로 나타나는 공격행위라고 하였다(이춘재, 곽금주, 2000; 최은숙, 2000).

반면 충동성에 대한 억제는 공격성 감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황혜정, 1999). 이는 충동성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행동을 피하게 된다.

5. 공격성과 학교체육활동

1) 학교체육활동의 개념

학교체육활동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체육목표를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의 책임하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체육활동은 주로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며,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학교체육활동의 유형은 광범위하며 주로 정규 체육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모든 신체활동을 포함한다. 즉, 학교체육이란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각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체육으로 교과체육, 동아리체육(학교 스포츠클럽), 자율체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운동기능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교육부, 2002). 여러 학자들이 체육을 정의하였는데, Siedentop(1972)은 체육은 오늘날 세계에서 필요로 하고 운동을 통해서 고안된 인간 활동과 표현형식을 제한하거나, 주위 사실을 묘사할 필요로 제한한 인간 활동의 기술과 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하였으며, Nixon과 Jewett(1974)는 체육은 개인의 운동 가능성의 발달과 이와 관련된 반응, 그리고 반응의 결과에서 오는 개인의 영속적인 행동수정에 관계된 전교육과정의 일면이라고 정의하였다(김선아, 2013, 재인용).

학교체육활동을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체육환경의 조성을 통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한, 손병모, 2011). 이를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교사, 학교 체육시설, 학교체육 관련 제도 등과 같은 학교체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근래에 학교체육활동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먼저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학교체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건강증진학교 운영, 체육재능뱅크 설치 및 운영(시·도 교육청), e-학교체육 정보센터 구축, 장애학생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 개발, 스포츠강사 지원,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제 확대,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또한, 2011년 중·고등학교에서 교양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2013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교육과정의 체육수업시수에

반영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 체육수업시수를 학기당 주 4시간으로 편성하였고, 현행 체육 교과 외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필수 이수과정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체육활동, 토요 체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체육활동 관여수준

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여(involvement)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학자에 의해 정의된 개념을 살펴보면, 관여는 요인적으로 동기, 흥미나 관심, 전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며, 상황관련성, 지속성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Festinger(1957)는 관여를 어떠한 문제에 대한 관심, 흥미, 또는 전념(commitment)이라고 하였으며, 부여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에 관한 개인의 관련성 지각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Houston과 Rothschild(1978)는 관여를 개인이 지속적 관계, 상황적 관계, 반응관계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처리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Beatty와 Scott(1984)는 특정 행위나 인지적 반응에 앞서 나타나는 동기적 활성화 상태로 관여를 정의하였다.

체육활동에서 특정 상황에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임하는데 동기적 요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육활동 관여수준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Kenyon(1981)은 관여의 개념을 스포츠 상황에서 개인적·사회적 행위로써 스포츠 상황에의 적극적인 참가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canlan, Carpenter, Schmidt과 Simons(1993)는 체육활동 관여도를 체육활동에 참여하려는 믿음이나 희망, 기대, 약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거나 요구하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김성규(2002) 역시 스포츠에 대한 반응이나 입장에 대한 관심 또는 전념으로써 지속적으로 축적, 형성되는 지속적 관여의 개념을 스포츠 관여도(sport involvement)라고 설명하였다.

즉, 체육활동 관여수준은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 즐거움으로 동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려는 의지간의 관계가 있다. 즉, 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을수록 체육활동에 대한 의미 있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3) 공격성과 학교체육활동의 관계

공격적인 측면은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일반학생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교과외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이 일반학생에 비해 높았으며(김선아, 2012), 운동선수들과 일반학생들의 공격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운동선수들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오장건, 2010).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동철, 2000; 김동현, 2013; 김성옥, 김정원, 황진, 2007; 이성학, 2012; 전은영, 2012). 이는 체육활동 특유의 높은 생리적 활성수준,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 다양한 공격적 단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공격적 행동과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경원, 1999). 또한,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경기자가 상대방에게 속임 동작에 의해 속거나 의도를 파악 당하게 되면 경기자는 상대방에게 공격적이 되며, 많은 점수 차가 날 때 지고 있는 팀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다(정혁진, 2010). 이는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며(최준혁, 2004), 공격적인 선수나 집단의 경우 비공격적인 선수나 집단에 비해 다른 사람의 의도에 적대적으로 느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행동반응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더 적은 반응대안을 생각해 내는 것으로 사고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반응 결정시에도 공격적인 행동반응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사회적 정보처리과정 단계에서 왜곡된 인지적 특성에 의해 공격적인 행동반응이 나타나게 된다(윤명구, 2002).

이에 반해, 일찍이 Lorenz(1990)가 인간의 본능으로서 공격본능과 그러한 본능의 폐해 없는 배출수단으로써 스포츠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간의 공격성을 동물과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동족간의 투쟁본능으로써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종족보존의 기능을 가진 건전하고 필수불가결한 인간의 본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인간의 문화적 삶에서 발전되고 의례화 된 투쟁의 특수한 형태가 스포츠이며 스포츠는 인간 공동체에 해를 주는 공격성을 저지하고 동시에 인간의 종족 보존적인 능력을 변함없이 유지시킨다. 강력한 공격성 배출의 자극에서도 유지되는 스포츠의 정정당당함 혹은 기사도정신은 인간의 중요한 문화적 업적이다. 스포츠는 누적된 공격본능의 훌륭한 배출구를 열어준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체육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낮아지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경쟁 후 그들의 외현적 공격성은 매우 낮아졌으며(Johnson, 1975; Corry, 1978; Martens, 1986),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방과후 체육 활동이 공격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나성준, 2013). 또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육활동 참가가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 등에서 체육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낮다고 하였다(유광욱, 원유병, 2007). 체육활동 참가여부에 따라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에 차이가 있었으며(이치균, 2007), 체육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서는 적극적 참여자가 소극적 참여자보다 낮은 수준의

비행을 보인다고 하였다(최상한, 1996).

이러한 이유는 체육활동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지속적으로 질서교육, 예절교육, 페어플레이 정신, 공격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해 주며(신선미, 2003), 체육활동이 개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정화작용을 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유광옥 등(2007)에 따르면 공격적인 행동은 인간적이라기보다 동물적 종(種) 특유의 본능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체육활동은 인간의 공격성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시켜 주는 카타르시스 과정을 통해 공격성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출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먼저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연구개시 전 서울대학교의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획득한 후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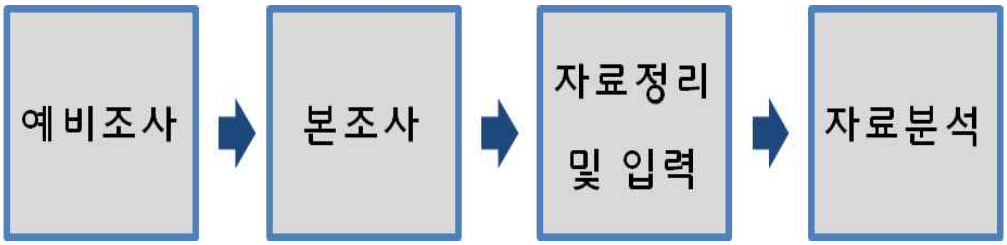

그림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지의 내용과 구성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3년 5월 중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의미 전달 정도, 이해도 등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13년 6월~7월에 대상 청소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조사대상에게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요청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 자료정리 및 입력

오류나 불합리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각 케이스에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제외하였다. 제외 기준은 단일 응답 항목에서 중복응답, 문항간의 모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상당수인 경우 등이다. 최종 자료는 코딩절차에 따라 입력하였다.

4) 자료분석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계산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CEFA 3.04를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AMOS 8.0을 활용하였다. 또한, 내적합치도와 변인간 관계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성별 또는 학년, 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moderator effect) 검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은 첫 단계에서 준거변인(학교 체육 활동 관여수준), 조절변인1(충동성), 조절변인2(성별), 조절변인3(학년)을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원상호작용변인(준거변인×조절변인1, 준거변인×조절변인2, 준거변인×조절변인3)을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삼원상호작용변인(준거변인×조절변인1×조절변인2, 준거변인×조절변인1×조절변인3, 준거변인×조절변인2×조절변인3)을 투입하였다. 이후 단계 간의 R^2 변화량(ΔR^2)과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영향력과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작용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의 4가지 가정인 잔차의 정규성(normality of the error), 잔차의 선형성(linearity of the error), 잔차의 독립성(independence of the residuals) 그리고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충족하였다.

2. 연구대상

예비조사는 경기도 H시에 위치한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15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동일 지역에 위치한 3개 중학교 1, 2, 3학년과 3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학년별 2개 학급을 무선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청소년기의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이에 따른 정신적 변화 또한 상당히 크며, 학교폭력의 문제가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일어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총 764명이 응답하였으며 부실하게 응답한 40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724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성별, 운동기능 수준, 학년에 따른 분포는 <표1>과 같다.

표 1. 성별, 운동기능 수준, 학년에 따른 인원 및 비율 (n=724)

변인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	360	49.7
	여	364	50.3
	계	724	100
운동기능	상	139	19.2
	중	417	57.6
	하	168	23.2
	계	724	100
학년	중학교 1학년	116	16
	중학교 2학년	228	31.5
	중학교 3학년	178	24.6
	고등학교 1학년	202	27.9
	계	724	100

다음으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른 인원 및 비율은 <표2>와 같다.

표 2.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른 인원 및 비율 (n=724)

변인	구분	인원(명)	백분율(%)
학교체육 활동 관여수준	정규 체육활동에 참여하나,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42	5.8
	정규 체육활동에 참여하나, 체육활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함.	148	20.4
	정규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380	52.5
	체육활동 하는 것을 좋아하며, 방과후 체육 활동에 참여함.	154	21.3
	계	724	100

3. 조사도구

1) 공격성 설문지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설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AQ)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한국판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모두 27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하위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 가끔 그렇다(1), 자주 그렇다(2), 항상 그렇다(3)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역채점 문항은 18번, 21번 문항이다. 원래의 설문지를 대학생 대상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통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장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식은 요인간 상관이 가정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중 target l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적합한 11문항(q1, q4, q6, q7, q8, q9, q12, q14, q15, q21, q24)을 삭제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표3>과 같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χ^2 = 90.859, p = .010으로 기각되었지만 RMSEA = .042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공격성 설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q11	0.52	0.14	0.12	-0.06
q19	0.53	-0.08	0.17	0.16
q27	0.40	0.04	-0.07	0.17
q2	-0.14	0.79	0.10	0.12
q13	0.32	0.39	-0.02	0.05
q3	0.08	0.24	0.63	-0.17
q16	0.14	-0.02	0.57	0.10
q17	0.08	-0.13	0.77	0.11
q18	-0.30	0.05	0.41	0.02
q5	0.01	0.18	-0.11	0.45
q10	0.16	0.00	-0.03	0.39
q20	-0.02	-0.04	-0.07	0.79
q22	0.06	0.10	0.01	0.51
q23	0.10	-0.06	0.06	0.53
q25	-0.02	-0.02	0.23	0.48
q26	-0.13	-0.01	0.03	0.65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16문항(신체적 공격성 3문항, 언어적 공격성 2문항, 분노감 4문항, 적대감 7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 GFI는 .90 이상,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5이상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08이상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표4>와 같으며, 각 수치 모두 연구수행에 적합하였다.

표 4. 공격성 설문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내적합치도

요인	RMSEA	GFI	TLI	CFI	Cronbach' α
신체적 공격성					.613
언어적 공격성					.604
	.055	.936	.929	.928	
분노감					.770
적대감					.756

2) 충동성 설문지

충동성 측정을 위해서 이현수(1992)가 번안한 충동성 설문지(Barratt Impulsiveness Scale-Ⅱ; BIS-Ⅱ)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총 23개 문항으로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 가끔 그렇다(1), 자주 그렇다(2), 항상 그렇다(3)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c1, c3, c4, c5, c6, c8, c9, c11, c19, c23은 역점수로 처리하였다.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식은 요인간 상관이 가정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중 target l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부적합한 10문항(c4, c6, c9, c12, c14, c17, c19, c20, c21, c23)을 삭제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표5>와 같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χ^2 = 37.889, p = .256으로 채택되었다.

표 5. 충동성 설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무계획 충동성	운동 충동성	인지 충동성
c1	0.64	0.09	0.18
c3	0.58	-0.02	0.15
c2	0.09	0.45	-0.06
c7	-0.30	0.39	0.25
c10	0.10	0.55	-0.08
c13	0.17	0.63	-0.01
c15	0.04	0.73	-0.05
c18	-0.02	0.48	-0.01
c22	-0.21	0.51	0.04
c5	-0.10	0.05	0.69
c8	0.23	0.17	0.40
c11	0.13	-0.08	0.54
c16	0.10	-0.05	0.57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0문항을 삭제한 13문항(무계획 충동성 2문항, 운동 충동성 7문항, 인지 충동성 4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를 조사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표6>과 같으며, 각 수치 모두 연구수행에 적합하였다.

표 6. 공격성 설문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내적합치도

요인	RMSEA	GFI	TLI	CFI	Cronbach' α
무계획 충동성					.631
운동 충동성	.058	.939	.909	.930	.709
인지 충동성					.716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학년, 충동성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과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격성 4요인, 충동성 3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성별 및 학년별 공격성, 충동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7>과 같다.

표 7. 공격성, 충동성의 기술통계 (n=724)

변인		평균 (표준편차)								
		종합	남	여	중1	중2	중3	고1	최소값	최대값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2.05 (.65)	2.13 (.66)	1.98 (.63)	1.96 (.57)	2.13 (.66)	2.00 (.64)	2.06 (.68)	1.00	4.00
	언어적 공격성	1.62 (.50)	1.66 (.52)	1.59 (.47)	1.61 (.52)	1.60 (.47)	1.65 (.47)	1.62 (.53)	1.00	3.67
	분노감	1.62 (.61)	1.59 (.58)	1.67 (.63)	1.54 (.50)	1.62 (.56)	1.56 (.58)	1.73 (.73)	1.00	4.00
	적대감	1.70 (.49)	1.65 (.45)	1.76 (.51)	1.67 (.46)	1.75 (.52)	1.63 (.43)	1.73 (.51)	1.00	3.57
	공격성 평균	1.74 (.41)	1.73 (.40)	1.75 (.42)	1.69 (.38)	1.77 (.41)	1.69 (.38)	1.77 (.45)	1.00	3.31
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2.16 (.75)	2.19 (.75)	2.14 (.75)	2.07 (.66)	2.22 (.80)	2.21 (.73)	2.11 (.75)	1.00	4.00
	운동 충동성	1.90 (.48)	1.87 (.45)	1.93 (.51)	1.87 (.46)	1.87 (.49)	1.90 (.44)	1.96 (.52)	1.00	3.71
	인지 충동성	2.20 (.61)	2.29 (.62)	2.19 (.59)	2.28 (.60)	2.21 (.63)	2.32 (.63)	2.05 (.54)	1.00	4.00
	충동성 평균	2.03 (.33)	2.05 (.34)	2.02 (.31)	2.03 (.32)	2.03 (.33)	2.07 (.30)	2.01 (.35)	1.08	3.15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격성, 충동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격성 중 신체적 공격성(M=2.05, SD=.65)이 다른 공격성 변인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감(M=1.70, SD=.49)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동성은 인지 충동성(M=2.20, SD=.61)과 무계획 충동성(M=2.16, SD=.75)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 충동성(M=1.90, SD=.4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 및 학년별 공격성, 충동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공격성은 남학생의 공격성(M=1.73, SD=.40)에 비해 여학생의 공격성(M=1.75, SD=.42)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동성은 남학생의 충동성이 여학생의 충동성(M=2.02, SD=.31)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년별 공격성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1.78, SD=.45), 충동성은 중학교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M=2.07, SD=.30).

다음으로 변인간의 예측 관계를 검토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이후 변인 간의 예측관계를 살펴 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8>과 같다.

표 8. 공격성, 충동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n=724)

구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무계획 충동성	운동 충동성	인지 충동성
신체적 공격성	1						
언어적 공격성	.309**	1					
분노감	.427**	.427**	1				
적대감	.376**	.411**	.457**	1			
무계획 충동성	.051	-.029	.003	.058	1		
운동 충동성	.286**	.296**	.325**	.333**	-.163**	1	
인지 충동성	-.031	-.003	-.082*	-.062	.522**	-.218**	1

**p<.01, *p<.05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309<r<.45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충동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신체적 공격성(r=.286, p<.01), 언어적 공격성(r=.296, p<.01), 분노감(r=.325, p<.01), 적대감(r=.333, p<.01)을 들 수 있지만, 무계획 충동성(r=-.163, p<.01), 인지 충동성 (r=-.218,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무계획 충동성은 공격성 변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인지 충동성(r=.522,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지 충동성은 공격성 변인 중 분노감(r=-.082, p<.05)에만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충동성(r=-.218, p<.01)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 및 학년, 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이원상호작용(성별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라 공격성(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이 감소하는지 여부와 <그림 3>과 같이 삼원상호작용(성별 × 충동성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 충동성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성별 × 학년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라 공격성(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 중 2단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검증과 동시에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들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 <그림 4>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에 따라 1단계에서는 성별, 학년, 충동성(무계획, 운동, 인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2단계에서는 이원상호작용항, 3단계에서는 삼원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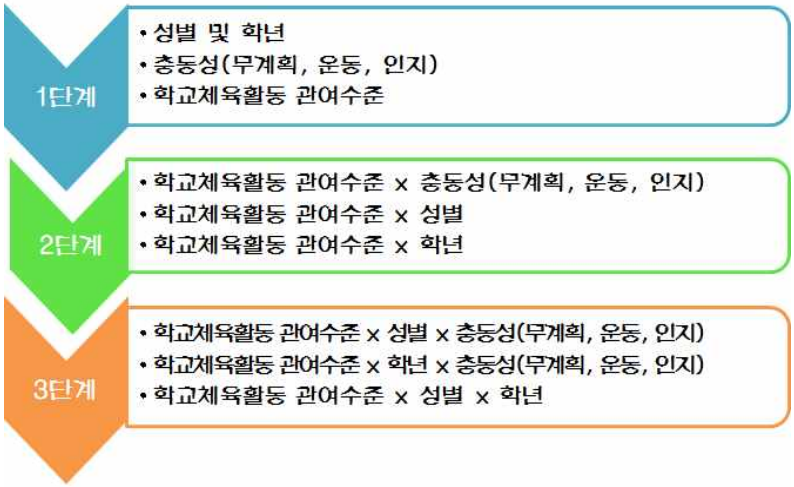

그림 4.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학년은 <표9>와 같이 공격성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고등학교 1학년을 '0', 나머지 학년을 '1'로 더미코딩하여 살펴보았다. 즉, 앞서 제시한 <표7>에서 가장 높은 공격성 평균을 나타냈던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더미코딩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고등학교 1학년과 다른 3개 학년 각각에 대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표 9. 학년 변인 더미코딩

학년	D1	D2	D3
중학교 1학년	1	0	0
중학교 2학년	0	1	0
중학교 3학년	0	0	1
고등학교 1학년	0	0	0

조절효과의 존재여부는 2단계 및 3단계에서 R^2 변화량($\triangle R^2$)의 유의성으로 판단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R^2 변화량($\triangle R^2$)이 .01 이상일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Cohen, Cohen, West, & Aike, 2003),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R^2 변화량($\triangle R^2$)이 1%(.01)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단계와 3단계에서 R^2 변화량($\triangle R^2$)과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영향력과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작용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1)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과 공격성(가설4)

청소년의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충동성(무계획충동성, 운동충동성, 인지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 공격성(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표10>과 같이 3단계 모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를 통해 이원상호작용(성별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으며, 3단계에서는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 R^2 변화량($\triangle R^2$)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1) 이원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가설 1, 가설 2, 가설 3)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에서는 R^2 변화량($\triangle R^2$)의 크기가 .01 미만이었으며, 이에 따라 성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 청소년의 성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가설2. 청소년의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가설3. 청소년의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표 10.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종속변수	신체적 공격성		종속변수	언어적 공격성		종속변수	분노감		종속변수	적대감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1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22***	.016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00***	-.018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22***	-.046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49***	-.076*
	무계획충동성		.111**	무계획충동성		-.010	무계획충동성		.075	무계획충동성		.138**
	운동충동성		.306***	운동충동성		.312***	운동충동성		.323***	운동충동성		.343***
	인지충동성		-.039	인지충동성		.056	인지충동성		-.029	인지충동성		-.036
	성별		-.141***	성별		-.089*	성별		.020	성별		.068
	학년1D		-.037	학년1D		.007	학년1D		-.077	학년1D		.001
	학년2D		.078	학년2D		.006	학년2D		-.053	학년2D		.040
	학년3D		-.027	학년3D		.033	학년3D		-.090*	학년3D		-.059
2	a×b	.129*** (.007)	-.047	a×b	.105*** (.005)	-.160	a×b	.129*** (.002)	.052	a×b	.153*** (.004)	-.221
	a×c		.263	a×c		.177	a×c		-.185	a×c		-.030
	a×d		-.288	a×d		.061	a×d		-.235	a×d		.176
	a×e		-.143	a×e		-0.59	a×e		-.080	a×e		-.125
	a×f		.101	a×f		.255	a×f		.314	a×f		.065
	a×g		.079	a×g		.177	a×g		.227	a×g		.208
	a×f		-.012	a×f		.153	a×f		.154	a×f		.172
3	a×b×e	.136*** (.007)	-.250	a×b×e	.106*** (.001)	-.052	a×b×e	.140*** (.011*)	-.262	a×b×e	.156*** (.004)	-.111
	a×c×e		.012	a×c×e		-.203	a×c×e		.259	a×c×e		.061
	a×d×e		-.210	a×d×e		-.069	a×d×e		-.207	a×d×e		.294

a=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b=무계획충동성, c=운동충동성, d=인지충동성, e=성별, f=학년1D, g=학년2D, h=학년3D

*p<.05, **p<.01, ***p<.001

(2)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가설4)

<표10>을 통해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의 경우 R^2 변화량($\triangle R^2$)의 크기가 .01 미만이었으므로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3단계에서 분노감에 대한 설명량은 .140($p<.001$)이었으며, R^2 변화량($\triangle R^2$)의 크기는 .01이상이었지만 투입된 상호작용변인 중 유의한 수준의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분노감에 대해서도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 충동성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가설4. 청소년의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2)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과 공격성(가설5)

(1)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가설5)

청소년의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변인과 충동성의 하위 변인인 무계획충동성, 운동충동성, 인지충동성, 그리고 학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3단계 모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 각 요인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를 R^2 변화량($\triangle R^2$)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표11>은 공격성에 대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성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낸 검증결과이다. 1단계와 2단계는 <표10>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3단계 설명량은 .150($p<.001$), R^2 변화량($\triangle R^2$)은 .021($p<.05$)였으며, 투입한 삼원상호작용 변수 중

①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인지충동성(d)×학년1D(f),

②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인지충동성(d)×학년3D(h)

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3단계 설명량은 .123($p<.001$)였다. R^2 변화량($\triangle R^2$)은 .019($p>.05$)였으나 투입한 삼원상호작용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11.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충동성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종속변수	신체적 공격성		종속변수	언어적 공격성		종속변수	분노감		종속변수	적대감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1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22***	.016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00***	-.018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22***	-.046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49***	-.076*
	무계획충동성		.111**	무계획충동성		-.010	무계획충동성		.075	무계획충동성		.138**
	운동충동성		.306***	운동충동성		.312***	운동충동성		.323***	운동충동성		.343***
	인지충동성		-.039	인지충동성		.056	인지충동성		-.029	인지충동성		-.036
	성별		-.141***	성별		-.089*	성별		.020	성별		.068
	학년1D		-.037	학년1D		.007	학년1D		-.077	학년1D		.001
	학년2D		.078	학년2D		.006	학년2D		-.053	학년2D		.040
	학년3D		-.027	학년3D		.033	학년3D		-.090*	학년3D		-.059
2	a×b	.129*** (.007)	-.047	a×b	.105*** (.005)	-.160	a×b	.129*** (.002)	.052	a×b	.153*** (.004)	-.221
	a×c		.263	a×c		.177	a×c		-.185	a×c		-.030
	a×d		-.288	a×d		.061	a×d		-.235	a×d		.176
	a×e		-.143	a×e		-0.59	a×e		-.080	a×e		-.125
	a×f		.101	a×f		.255	a×f		.314	a×f		.065
	a×g		.079	a×g		.177	a×g		.227	a×g		.208
	a×f		-.012	a×f		.153	a×f		.154	a×f		.172
3	a×b×f	.150*** (.021*)	-.273	a×b×f	.123*** (.019)	-.251	a×b×f	.156*** (.028*)	-.319*	a×b×f	.165*** (.012)	-.254
	a×b×g		-.268	a×b×g		-.247	a×b×g		-.357*	a×b×g		-.075
	a×b×h		.005	a×b×h		-.173	a×b×h		-.138	a×b×h		.055
	a×c×f		.008	a×c×f		-.188	a×c×f		-.509**	a×c×f		-.264
	a×c×g		-.154	a×c×g		-.121	a×c×g		-.268	a×c×g		-.014
	a×c×h		-.112	a×c×h		-.242	a×c×h		-.431*	a×c×h		.032
	a×d×f		.510*	a×d×f		.266	a×d×f		.394	a×d×f		.153
	a×d×g		.180	a×d×g		-.188	a×d×g		.385	a×d×g		-.174
	a×d×h		.465*	a×d×h		.173	a×d×h		.496*	a×d×h		-.056

a=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b=무계획충동성, c=운동충동성, d=인지충동성, e=성별, f=학년1D, g=학년2D, h=학년3D

*p<.05, **p<.01, ***p<.001

분노감에 대한 3단계 설명량은 .156(p<.001), R^2 변화량(△R^2)은 .028 (p<.05)로 유의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투입한 삼원상호작용 변수 중

①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무계획충동성(b)×학년1D(f)

②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무계획충동성(b)×학년2D(g)

③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운동충동성(c)×학년1D(f)

④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운동충동성(c)×학년3D(h)

⑤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인지충동성(d)×학년3D(h)

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적대감에 대한 3단계 설명량은 .165(p<.001)였다. R^2 변화량(△R^2)은 .012(p>.05)였으나 투입한 삼원상호작용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2) 상호작용 그래프를 통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 <표11>의 결과를 통해서 신체적 공격성, 분노감과 관련하여 총 7개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호작용 그래프를 바탕으로 삼원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분노감은 무계획충동성, 운동충동성, 인지충동성을 구분하여 그래프를 비교하였다.

먼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무계획충동성,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은 연속 변수이므로,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 <표12>와 같이 범주형 자료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무계획충동성, 운동 충동성, 인지충동성의 평균 점수 이상은 고집단, 이하는 저집단으로 구분하였고, 학년은 기존에 코딩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표 12. 범주형 자료 변환 (n=72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저집단(명)	고집단(명)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2.89	.80	290	434
무계획충동성	2.16	.75	426	298
운동충동성	1.90	.48	393	331
인지충동성	2.20	.61	357	367

<그림5>와 같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이 신체적 공격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낮은 인지충동성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집단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인지충동성이 낮은 집단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체적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낮은 인지충동성을 가진 중학교 1학년 집단, 낮은 인지충동성을 가진 3학년 집단, 높은 인지충동성을 가진 3학년 집단은 오히려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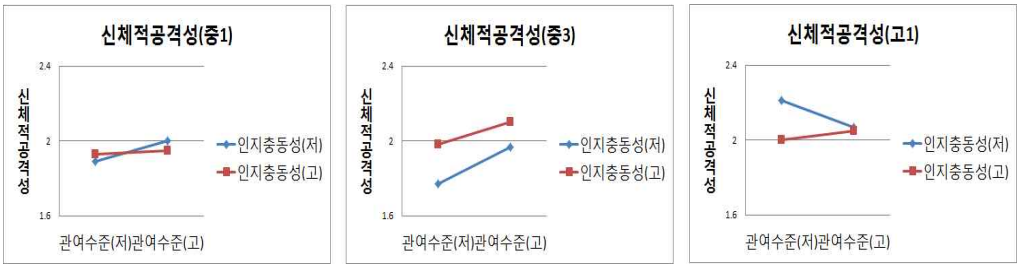

그림 5. 학년, 인지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6>은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분노감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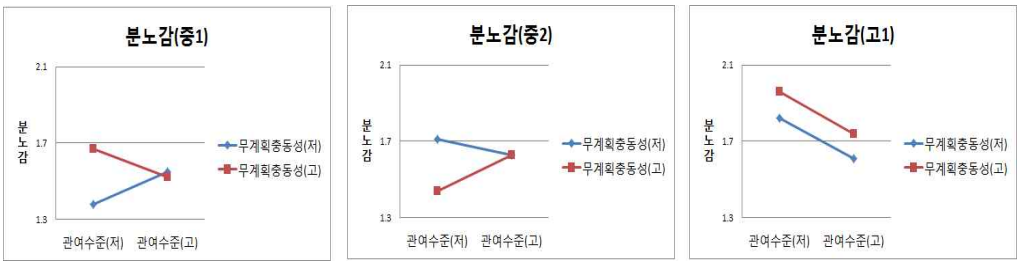

그림 6. 학년, 무계획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

<그림6>과 같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무계획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이 분노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은 무계획충동성이 높은 학생 집단에서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계획충동성이 낮은 집단은 오히려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무계획충동성이 낮은 학생 집단에서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이었지만, 무계획충동성이 높은 집단에서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무계획충동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운동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에 의한 분노감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7. 학년, 운동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에서 운동충동성이 낮은 집단은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에서 운동충동성이 높은 집단과 중학교 3학년에서 운동충동성이 낮은 집단은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 크기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운동충동성이 높은 집단, 고등학교에서 운동충동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인지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에 의한 분노감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8. 학년, 인지충동,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3학년에서는 인지충동성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으로 나타났지만, 인지충동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인지충동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5. 청소년의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부분적으로 지지)

3)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과 공격성(가설6)

(1)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표13>을 통해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모두에서 R^2 변화량($\triangle R^2$)의 크기가 .01 미만이었으므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학년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가설6. 청소년의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표13.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단계	종속변수	신체적 공격성		종속변수	언어적 공격성		종속변수	분노감		종속변수	적대감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독립변수	R^2 ($\triangle R^2$)	베타
1	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122***	.016	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100***	-.018	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122***	-.046	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149***	-.076*
	무계획충동성		.111**	무계획충동성		-.010	무계획충동성		.075	무계획충동성		.138**
	운동충동성		.306***	운동충동성		.312***	운동충동성		.323***	운동충동성		.343***
	인지충동성		-.039	인지충동성		.056	인지충동성		-.029	인지충동성		-.036
	성별		-.141***	성별		-.089*	성별		.020	성별		.068
	학년1D		-.037	학년1D		.007	학년1D		-.077	학년1D		.001
	학년2D		.078	학년2D		.006	학년2D		-.053	학년2D		.040
	학년3D		-.027	학년3D		.033	학년3D		-.090*	학년3D		-.059
2	a×b	.129*** (.007)	-.047	a×b	.105*** (.005)	-.160	a×b	.129*** (.002)	.052	a×b	.153*** (.004)	-.221
	a×c		.263	a×c		.177	a×c		-.185	a×c		-.030
	a×d		-.288	a×d		.061	a×d		-.235	a×d		.176
	a×e		-.143	a×e		-0.59	a×e		-.080	a×e		-.125
	a×f		.101	a×f		.255	a×f		.314	a×f		.065
	a×g		.079	a×g		.177	a×g		.227	a×g		.208
	a×f		-.012	a×f		.153	a×f		.154	a×f		.172
3	a×f×e	.130*** (.001)	-.005	a×f×e	.109*** (.004)	.082	a×f×e	.130*** (.001)	-.085	a×f×e	.154*** (.001)	-.039
	a×g×e		-.106	a×g×e		.242	a×g×e		.036	a×g×e		.017
	a×h×e		-.049	a×h×e		.201	a×h×e		-.036	a×h×e		-.072

a=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b=무계획충동성, c=운동충동성, d=인지충동성, e=성별, f=학년1D, g=학년2D, h=학년3D

*p<.05, **p<.01, ***p<.001

Ⅴ.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전념하는가를 나타내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충동성, 성별, 학년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이원상호작용 효과와 삼원삼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때, 2단계와 3단계에 포함된 이원상호작용변인과 삼원상호작용변인 모두를 한 번에 투입함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 통계적 검정을 실시할 경우 발생되는 1종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Cohen, Cohen, West, & Alike, 2003). 또한, 이를 통해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 중 2단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과 동시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격성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은 신체적 공격성(M=2.13), 언어적 공격성(M=1.66)과 같은 외현적 공격성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은 분노감(M=1.67), 적대감(M=1.76)과 같은 내재적 공격성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여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Maccoby와 Jacklin(198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공격성은 고등학교 1학년(M=1.7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살펴본 김경아(2008)의 연구에서 공격성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며,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결과와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신체적 공격성이 감소한다고 밝힌 Tremblay 등(1996)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Dunn(1985)은 공격성이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과 같은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상황적 변화가 학년에 따른 공격성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학년, 충동성 각 요인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에도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년, 충동성 각 요인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스포츠 활동이 참여자의 다양한 공격적 단서 등의 부정적 행동으로 인해 공격성을 증가시키거나(김동철, 2000; 김선아, 2012; 김성옥, 김정원, 황진, 2007; 이성학, 2012; 전은영, 2012), 또는 심리적 정화 작용, 스트레스 해소 등과 같은 긍정적 작용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김성일, 2012; 유광욱, 원유병, 2007; 최상한, 1996)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 하위요인 중 적대감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단계에서 성별, 연령, 충동성과 이원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학교체육활동에 관여수준이라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한 변인의 개념적 차이가 부분적인 원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효과(main effect)인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성별, 학년, 충동성 외에 다른 변인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 학년, 충동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이들 변인이 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에서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과 성별, 학년, 충동성 요인간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중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충동성의 각 요인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에서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을 통해서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 유의하지 않다는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삼원상호작용효과의 검증을 통해 학교체육 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며, 이러한 과정에는 학년과 충동성 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년과 인지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인지충동성이 낮은 집단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체적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체적 경쟁 후 참가자들의 외현적 공격성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Johnson, 1975; Corry, 1978; Martens, 1986)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학년과 충동성 하위요인(인지충동성, 무계획충동성, 운동충동성)은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을 감소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감이 그 자체로써 여러 충동성과 관련이 있고(Averil, 1982),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경험(Izard, 1977)과 신체적 활동의 제한(강신덕, 1997)이 분노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즐겁고 능동적인 학교체육활동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고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 집단에서 충동성 각 요인에 구분이 없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을수록 분노감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입시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커진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고학년에게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인지충동성이 낮은 중학교 1학년 집단과 3학년 집단, 그리고 인지충동성이 높은 3학년 집단에서는 오히려 신체적 공격성이 증가하며, 또한 무계획 충동성이 낮은 1학년 집단과 높은 2학년 집단에서는 분노감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단순히 체육활동에 능동적이고 즐겁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 학생들의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학습구조와 내용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집단별로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 점수가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학년별로 약 1.7~2.3점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2.0점 안팎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분노감 역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약 1.3~2.1점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었지만, 높은 집단에서는 1.7점 안팎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공격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며, 이에 대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충동성은 반항심과 화를 높게 만들고,

자기 통제력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부적응이나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옥지원, 이혜순, 2012), 분노나 범죄행동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이신애, 2012), 충동성이 높은 집단에서 공격성 또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집단의 인지충동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중학교 2학년의 무계획충동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분노감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충동성이라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이 상황의 변화가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학년, 충동성의 조절변인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724명을 대상으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공격성과 충동성의 측정도구는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내적합치도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공격성 총 4요인 16문항, 충동성 총 3요인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72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간 관계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CEFA 3.04를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8.0을 활용하였다. 또한, 내적합치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둘째, 충동성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넷째,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다섯째,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 감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인지충동성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지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운동충동성 각 변인 집단에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분노감 감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격성 감소 효과는 높은 학년에서 더욱 명확하고 강하였다.

여섯째,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아쉬움과 제한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724명이며, 중학교 1학년 학생 116명, 중학교 2학년 228명, 중학교 3학년 178명, 고등학교 1학년 2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표본 내 연구 집단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 검증력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서영석, 2010; Aguinis, 1995)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학년별로 집단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점은 신뢰도 제고에 제한점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 H 지역에 소재한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배경변인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최소화하고 표집단위를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법, 관찰법 등을 설문지법과 병행하거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설문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참여자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공격성과 충동성에 대해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나 자기방어적 응답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조사방법에서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의존하고 있어, 특정시점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것은 응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변인간의 관계가 종단적인 설계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와 관계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삼원상호작용효과를 통해 높은 학교체육활동 관여 수준 집단의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체육활동 참여가 공격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와 다르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원 (1997). 학교폭력의 현실과 우리 사회의 대책: 학교폭력과 사회복지의 과제. **학교사회사업학회.**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고 학생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학교 300개교를 만듭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201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곽금주, 문은영 (1995).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8(1),** 1-11.

김경아 (2008). **청소년 공격성 변동의 영향요인: 3년 종단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원 (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하 (2005). **중학생의 컴퓨터 게임 중독이 공격성 및 도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 (1986). **아동심리학.** 박영사.

김동철 (2000). 남자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양상에 따른 언어적·신체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현 (2013). **학교스포츠클럽 수업에 의한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변화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남 (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선아 (2013). **교과외 체육활동이 중학생의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옥, 김정원, 황진 (2007). 학원 클럽 축구 선수들의 스트레스, 자기존중감, 공격성, 사회성의 관계.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1),** 103-117.

김순혜 (2007). 학교폭력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7(2),** 67-85.

김애경 (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 조사. **제14회 특수상담사례 연구 발표회.**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정옥, 장덕희 (1999). 가정 폭력이 청소년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 관계학회지 4(2)**.

김준호 (1997). 학교 주변 폭력의 사회적 원인.

김재근 (1993). **불안과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옥, 장덕희 (1999). 가정 폭력이 청소년 학교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 가족 관계학회지 4(2)**.

김철민 (2003). **초등학생의 게임중독과 충동성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헌수, 김현실 (1997). 한국 비행 청소년의 가정 환경 및 개인 내적 특성.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8(1),** 57-69

김효선 (2002). **인터넷 게임 중독이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선숙 (1997). **학교폭력실태 조사연구: 충남지역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나성준 (2013). **방과후 스포츠활동 참여가 공격성, 자아통제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순현, 최현경 (2006). 신체학대, 공격성 및 아동기 비행간의 관계: 모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97-909.

노치영 (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병근, 백민기 (1981). 비행청소년의 약물사용 빈도 및 약물사용 양상에 관한 사회정신 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 234-248.

박상도 (2001).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종단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41.

박정현 (2000).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22(4)**, 1147-1168.

심응철 (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 행동의 상관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05).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신혜섭 (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4),** 123-149.

안현균, 천항욱(2012). 학교체육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학교스포츠 클럽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0(2),** 13-29.

오장건 (2010). **고교 운동선수와 일반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현양식 및 공격성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광욱, 원유병 (2007). 스포츠 참여에 따른 학교폭력과 기분상태.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8(4),** 93-108.

유귀순 (2001). **공격성과 동조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리라 (1999).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적보처리 특성: 반응적 공격성과 비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명구 (2002). **운동선수의 불안수준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 : 대학교 태권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종호(2000). **중학생 특기・적성 교육활동 실태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진란 (1994). **부모의 성격특성과 아동의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님 (2006). 아동의 개인, 가족, 가족 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31-44.

이규미 (1998).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대한 체험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규호 (2011). **APSD(Antisocial Process Screening Device)의 타당성 연구: 청소년 범죄자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금주(2002). **학교폭력의 실태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아, 한종철, 이기학 (1999).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1),** 95-108.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성학 (2012). **청소년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가 심리적 변인(우욱, 공격성,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경, 오인수 (2012). 충동성, 공격성과 직접, 관계적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죄책감의 매개효과 분석, 상담학연구, 13(4), 2017-2032.

이수연 (2007).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옥주 (1976). 인간의 공격성의 소고. **서울여대 논문집. 제5호.**

이은아 (2010).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인혜 (1991).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의 연결: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감각추구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126-136.

이춘재, 곽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이치균 (2007). **스포츠 참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심리적 특성의 차이.**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한, 손병모 (2011). 방과후 체육 특기·적성 교육활동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과학회지, 20(2),** 641-648.

이현경 (1992). **주장훈련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 및 주장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희영 (1997).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유진 (2007). **중학생의 성별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자기애 및 지배성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은영 (2007). **하타 요가가 남자 중학생의 신체상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규성 (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폭력 영향 요인 비교. **사회과학연구, 24(4),** 323-338.

정은혜 (1991).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태연, 윤진 (1992). 충동성과 공격성이 좌절상황에서의 사회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 29-40.

정혁진 (2010). 뉴 스포츠 참여 경험에 따른 흥미도와 공격성, 스트레스 비교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상근 (2007). **인터넷 중독이 아동의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11).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최기수 (2010). **운동선수의 공격상태불안이 공격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상한 (1996).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은숙 (2000).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준혁 (2004). **학교체육에 투영된 성역할 강화.**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해림 (2005).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99-616.

최혜라, 이훈진 (2012). 충동성과 강박성: 개념, 관계 및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169-196.

표갑수 (1998). **아동・청소년 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 **법률 제11690호.**

황혜정 (1999).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과 정서 행동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3(1),** 67-84.

Amir, M. (1971). Patterns in forcible rape. *Chicat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erson, E. (1994). The code of the streets. *Atl Mon, 5,* 81-95.

Archer, J. (1991). The influence of testosterone on human aggress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2,* 1-28.

Baldry, A. C., & Farrington, D. P. (1999). Types of bulling among italian schoolchildren. *Journal of Adolescence, 22,* 423-426.

Bandura, A. Ross, D. & Ross, S. A. (1963). Imitation of filmmediated aggressive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3-11.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6-21.

Barratt, E., & Patton, J. (1983) Impulsivity and paced tapping, *Journal of Motor Behavior, 13,* 286-300.

Barratt, E.(1991) Measuring and predicting aggression within the context of a personality theory. *Journal of Neuropsychistry,* 3, 535-539.

Berkowitz, L. (1988). Frustrations, appraisals andaversively stimulate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4,* 3-11

Berkowitz, L. (1992). Collegmen as perpetrators of acquaintance rape and sexual assault: a review of recent research. *Am Coll Health, 40,* 175-181.

Booth, A., & Osgood, D. W. (1993). The influence of testosterone on deviance in adulthood: Assessing and explaining the relationship. *Criminology,* 31.

Brennan, P. A., Raine, A., Schulsinger, F., Kirkegaard-Sorensen, L., Knop, J. & Hutchings, B. (1997). Psychophysiological protective factors for male subjects at high risk for criminal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853-855.

Buss, A.,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343-349.

Buss, A., & Plomin, R. (1975). A temperament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NY.: Wiley.*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2-459.

Campbell, S. B.(1990). Longitudinal studies of active and aggressive preschoolers: individual differences in early behavior and in out come.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expressions of dysfunction. *NJ: Earlbaum,* 57-90.

Capadi, D. M. (1989). The relation of parenting transitions to boys' adjustment problem. ED 308983.

Clarke, D. (2006). Impulsivity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roblem gambl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5-15.

Cleckley, H. C. (1976). *The mask of sanity*(5th ed). St. Louis, Mo:mosby.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rlbaum.

Craig, W. M. (1998).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4,* 123-130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s, feelings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Dabbs, J. M., & Morris, R. (1990). Testosterone, social class and antisocial behavior in a sample of 4,462 men. *Psychological Science, 1,* 209-211.

Dickman, S. J. (1990). Functional and dysfunctioan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5-102.

Dollard, J., Doob, L. W., Miller, N.,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Dunn, J. (1985). Continuities in sibling relationship: Patterns of Aggressional and friendline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4),* 627-637.

Elliott, D. S. (1994). Serious violent offenders: Onset, developmental course, and termination.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by, 32,* 1-21.

Eronen, M., Hakola, P. & Tiihonen, J. (1996). Mental disorders and homicidal behavior in Finlan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497-501.

Eysenck, H. J. (1977). *Crime and personality* (3rd e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Farrington, D. P. (1989).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4(2),* 79-100.

Feshbach, S. (1964).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ogical Review, 71,* 257-272.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331-342.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 634-660.

Galen, B. R., & Underwood, M. K. (1997). A development investigation of social aggress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89-600.

Gartner, J. & Whitaker-Azimitia, P. M. (1996). Developmental factors influencing aggression: animal models and clinical correlat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794,* 113-120.

Gladue, B. (1991).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ex differences in self report aggressive behavior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Report,* 68, 675-684.

Green, L. R., Richardson, D. R. & Lago, T. (1996). How do friendship, indirect and direct aggression relate? *Aggressive Behavior, 22,* 81-86.

Grigsby, J., & Stevens, D. (2000). The neurodynamics of personality. NY. :Guilford.

Harris, J. A., Rushton, J. P., Hampson, E. & Jackson, D. N. (1996). Salivary testosterone and self report aggressive and pro-soci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men and women. *Aggressive Behavior, 22,* 321-331.

Hudley, C., & Graham, S. (1993). An attributional intervention to reduce peer-directed aggression among african-american boy. *Child Development, 63,* 103-115.

Kagan, J., Mussen, D., & Conger,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 Harper Row.

Kaltiala-Heino, R., Rimpela, M., Rantanen, P., & Rimpela, A. (2000). Bullying at school: An indicator of adolescents at risk for mental disorders, *Journal of Adolesce, 23,* 661-674.

Koltz, C. (1983). Scapegoating. *Psychology Today,* 68-69.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Peer reg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wis, D. O., Pincus, J. H., Feldman, M., Jackson, L. & Bard, B. (1986). Psychiatric, neurological and psycho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15 death row inmate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3,* 838-845.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ren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Loeber, R., & Stouthamer-Loeber.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The American psychologist,* 53(2), 242-259.

Lorenz, L. (1990) Dan sogeannte Bose. Zur Naturgeschichte der aggression. *Nordlingen.*

Maccoby, E. E., & Jacklin, C. N. (198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Are joinder and reprise. *Child Development,* 51, 964-980.

Maguin, E. & Loeber, R. (1996). Academic performance and delinquency. In: Crime and justice. *Tonry M, Morris N, eds, Chicago: Univ Chicago Press, 20,* 145-264.

Mednick, S. A., Brennan, P. & Kandel, E. (1988). Predisposition to violence. *Aggressive Behavior, 14,* 25-33.

Miller, N. E. (1941). The 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Psychological Review, 48,* 337-342.

Mitsis, E. M., Halperin, J. M. & Newcorn, J. H. (2000). Serotonin and aggression in children. *Current Psychiatry Reports, 2,* 95-101.

Moffitt, T. E. (1993). Life-course-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Moskowitz, D. S., Schwartzman, A. E., & Ledingham, J. E. (1985). Stability and change in aggression and withdrawal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30-41.

Nixon, J. E., & Jewett, A. E.(1974). *An Introduction to Physical education.* Philadelphia : W. B. Saunders Co.

Olweus, D. (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27-852.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Ostrov, J. M., & Godleski, S. A. (2009). Impulsivity-hyperactivity and subtypes of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An observational and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8. 477-483.

Raine, A. (1996). Autonomic nervous system factors underlying disinhibited, antisocial and violent behavior: Biosocial perspectives and treatment implication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794,* 46-59.

Ramirez, J. M., & Andreu, J. M. (2006). Aggression and some realted psychological constructs(anger, hostility, and impulsivity): Some comments from a research project. *Neuroscience and Biobehavioral Reviews,* 30, 276-291.

Riger, S. & Gorcon, M. T. (1988). The fear of rape: a study in social control. *Soc Issues, 37,* 71-92.

Robins, L. N. (1978). Study predictors of adult antisocial behaviour, replications from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Medicine, 8,* 611-622.

Scanlan, T. K., Carpenter, P., Schmidt, G. W. & Simons, J. P. (1993). The sport commitment model: Measurement development for the youth-sport domain.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5,* 16-38.

Schonberg, I. J. (1992). The distortion of the role of mother in child sexual abuse. *Child Sex Abuse, 1,* 47-61.

Siendentop, D.(1972). *Physycal education, Interdisciplinary approach.* New York. The Macmillan Co.

Tomada, G., & Schneider, B. H. (1997).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peer acceptance: Invariance across culture, stability and concordance among inform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5, 943-963.

Tremblay, R. 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Tremblay, R. E., Boulerice, D., Harden, P. W., McDuff, P., Perusse, D., Pihi, R. O., & Zoccolio, M. (1996). Do children in canada become more aggressive as they approach adolescence?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statistics Canada, *Growing up in Canada: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Ottawa: Statistic Canada.

Van Beijsterveldt, C. E. M., Bartels, M., Hudziak, J. J., & Boomsma, D. I. (2003). Causes of stability of aggress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A longitudinal genetic analysis in Dutch Twins. *Behavioral Genetics, 33,* 591-605.

Vigil-Colet, A., & Codorniu-Raga, M. M. (2004). Aggression and inhibition deficits, the role of functional and disfunctional impuls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1431-1440.

Smith P. K., & Sharp. S. (1994).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 London and NY.: Routledge.

White, H, R., Loeber, R., Stouthamer-Loeber, M., & Rarrington, D. P. (1999). Developmental associations between substance use and violence.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1,* 785-803.

Wills, T. A. & Filer, M. (1996). Stress-coping model of adolescent substance use.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91-132.

Wilson, S. J., Lipsey, M. W., & Derzon, J. H. (2003). The effects of school-based intervention programs on aggressive behavior: A meta-ans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136-149.

Wilson, J. Q., & Herrnstein, R. J.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 Schuster.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성별, 학년, 충동성을 조절변인으로)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청소년의 성별, 학년, 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료는 통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문민권
(010-2052-2839 / mkmun2@hanmail.net)

☞ 다음은 학교체육활동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1.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① 정규 체육수업에는 참여하나,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② 정규 체육수업에만 참여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 정규 체육수업에만 참여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④ 정규 체육수업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한다.

☞ **다음은 공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때때로 나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을 통제하기 어렵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많다.				
3	나는 화가 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4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 받고 싸우는 편이다.				
5	누가 내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된다.				
6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치고 받고 싸운 적이 있다.				
7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8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9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10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11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12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 마디 해 줄 수 있다.				
13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자주 논쟁을 벌이게 된다.				
14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5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16	일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참기 어렵다.				
17	나는 가끔 화가 나는 것을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다.				
18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19	누군가 화를 한껏 돋우면, 나는 그 사람을 때릴 지도 모른다.				
20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1	나는 누굴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23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24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어진다.				
25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하게누군가를 적으로 여기고 경계하곤 한다.				
26	나는 '나의 친구'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에 대해 몰래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27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 **다음은 충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2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3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장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4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5	어떤 일이든지 쉽게 몰두할 수 있다.				
6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7	한군데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다.				
8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9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정성을 깊이 고려한다.				
10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편이다.				

11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12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에 착수한다.				
13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한다.				
14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15	앞뒤 생각없이 행동한다.				
16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노력한다.				
17	이리저리 자주 옮겨다니며 사는 것이 좋다.				
18	특별한 계획없이 기분대로 물건을 산다.				
19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 한다.				
20	용돈을 받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다.				
21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는다.				
22	수업을 듣거나 대화를 할 때 가만있지 못한다.				
23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3. 자신의 운동기능 정도 : ① 상 ② 중 ③ 하
4. 경제적 환경 : ① 상 ② 중 ③ 하
5. 자신의 건강상태 : ① 상 ② 중 ③ 하

모든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Impact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Level of Youths on Aggression

- With impulsiveness, gender, and school year as moderating variables.

Minkwon Mo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information that can solve the aggression of youths through physical activities by verifying the impact of their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on aggression, depending on impulsiveness, gender, and school year. To accomplish the objective, a survey was conducted on all year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Also,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s on school physical activity involvement, aggression, impulsiveness were verified.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through SPSS 18.0 to conduct a basic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 findings gained through the following methods and data are as follows. First, the binary interaction of each variable, which are gender, school year, and impulsiveness,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aggression. Second, the ternary interaction of school year, impulsiveness,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had a partial impact on physical aggression and anger reduction, sub-variables of aggression. Such impact on aggression reduction was greater among upper classmen. Third, the ternary interaction of school year, gender,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and the ternary interaction of gender, impulsiveness,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aggression.

Keywords: involvement level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 aggression, impulsiveness

Student Number: 2011-21610